

대선 정치판 ‘찐’이 없다

법 개정으로 후원회 폐지 당비·보조금 의존 신당·한나라 비용 한도액도 채우기 힘들 듯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과 각 주자 진영이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경선으로 그나마 있던 자금을 소진한 데다가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정치자금 모금할 통로마저 극도로 좁아진 때문이다. 2002년 대선 때는 정당 후원회를 뒤 비당원의 금전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폐지돼 정당이 정치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당비, 국고보조금, 자체 자산, 차입금 정도 뿐이다. <범여권> 선거법에서 정한 올해 대통령 선거 비용한도액은 465억원을 채우기에도 힘들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자금문제에서만큼은 유명무실하다. 당 공식 계좌 잔액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차입한 부분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잔고 상태로 추정될 정도다. 때문에 대통합신당은 소속의원 140명 전원에 3천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급한대로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자는 동의를 돌리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경선 과정 등에서 이미 대출한도를 채운 상태여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오는 27일 선관위에서 110억원의 선거보조금이 나오면 급한대로 자금난에 숨통을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중당 사정은 더 어렵다. 올해 범여권 정계개편 과정에서 김한길 의원의 통합신당과 합당할 때 13억여원의 가의돈이 생겼지만 경선에 이미 소진했다. 선대위가 꾸러지면서 당직자 숫자가 50명에서 100명으로 배가 늘었지만 추가 합류인사들에게는 활동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대위 발족을 위한 필승전대회는 지방선대위원장들이 각축하는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은 원내 의석이 1석이어서 선거보조금이 2천만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137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문 후보가 사재를 털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당직자 월급이 한 달치 연체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하다. <한나라당>=한나라당도 자금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다. 국고보조금 23억원과 당비 10억원이 당으로 들어오지만 당 운영하기에 빠듯하다. 선

거보조금으로 100억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법정한도액 465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차입이 쉽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당 및 후보 후원회가 없어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선거비용은 나중에 70~80%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돈은 차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후보>=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후보 진영의 자금난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는 본인의 사재 출연이나 차입금으로만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뿐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이회창 캠프는 순수하게 후보가 내놓은 차입금으로만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고건 전 총리 출마설도 ‘솔솔’

본인 고사 불구 정치권서 나돌아 범여 단일화 논의 변수 작용 주목



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 전 총리와 친분이 있는 한 의원은 “그동안 준비 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역부족이다”며 “현단계에서는 본인 입장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지지율이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고건 전 총리(사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범여권 일각에서는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고 전 총리 역할론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당선 후 신당측이 외연확대 차원에서 영입을 추진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지만, 정 후보의 지지를 정체에 더해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선언을 기점으로 아예 출마설도 비화되는 흐름이다. 고 전 총리 측의 한 인사는 10일 “고 전 총리가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회창 총리에게 대해 단호히 고사해 왔지만 최근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제 ‘3~4일 생각해 보겠다’며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우민회 등을 비롯한 고 전 총리 지지 모임도 조만간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 등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고 전 총리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인 김덕봉 전 총리 공보수석비서관은 11일 “고 전 총리의 입장은 지난 1월 대선 불출마 및 불개입 선언을 한 데서 전혀 변화가 없다”며 “오늘 아침 고 전 총리와 연락을 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또 “고 전 총리가 현재 지방에 있으며 이는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요즘 이를 둘러싼 말들이 많아 잠시 피해 있

하지만 이 역시 폭발력은 미지수다. 신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의 지지를 부진으로 과연 정 후보가 필승카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적인 시각이 새어나오면서 호남 표심을 흔들기 위해서라도 ‘고 건 카드’를 되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설왕설래되고 있다”며 “단일화 효과도 장담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고 전 총리가 나온다면 ‘제2의 이회창’이 되는 셈이며 2002년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의 재판 밖에 더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1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행복은행 1호점 개점식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정권을 탈환하고 국정현안을 협의하는 정치적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후보 통합논의는 세력확대에만 골몰”

문국현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1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민주당에 통합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정 후보가 이인제 후보와 통합하는 것은 재벌과 특권층(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통합이나 단일화를 통해 새로운 정국을 이끌어볼까 하는 생각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합 서울여성포럼에서 열린 당 ‘싱크탱크’인 대한민국창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은 참여정부 5대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데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사과없이 세력확대에만 골몰하니 지지율이 12~14%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문 후보에 대해 점진적인 단일화의 뜻을 표명한 데 대해서는 “지금처럼 5대 실정과 삼성 비자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허구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를 맞아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합니다. 선거법 현상퀴즈는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한 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진공청소기를 우승해드립니다.

문1) 다음 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연령은 몇 세 이상일까요?
 ① 17세 이상 ② 18세 이상 ③ 19세 이상 ④ 20세 이상

문2) 전남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선거법으로 인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연말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다음 중 이번에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① 장흥 ② 해남 ③ 장성 ④ 보성

*응모요령=엽서(종류 무관)에 문1) 과 문2)의 정답을 적어(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일보사 편집국 선거법 퀴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光 州 日 報 社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鄭 “단일화만이 수구세력 집권 막아” 李 “朴 정권창출후에도 정치 파트너”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11일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통합논의를 공식제안하면서 “우리가 하나되는 것만이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민주당과의 통합이 사실상 ‘흡수통합’이 아니냐는 민주당측 우려를 감안한 듯 “현실적으로 흡수통합은 불가능하다”며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통합이 아니라 일대일로 당대당의 입장에서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합 통합”임을 누차 강조했다.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반부패 미래연석회의를 통해 공통점과 협력을 넓혀갈 생각”이라며 “통합의 원칙에 뜻을 같이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차차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 단계적 통합에 나설 뜻을 표명했다. 정 후보는 통합대상에 민주노동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통합의 원칙에 뜻을 같이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차차 논의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1일 “정권 창출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주요한 국정 현안을 협의하는 정치적 파트너로, 소중한 동반자로 함께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전이든 이후든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당헌·당규는 지켜져야 하고 그 절차에 따라 대선과 총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고 소통의 정치와 마음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박 전 대표와 강제성 대표가 참여하는 3자 정례회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BBK 의혹과 관련해 제게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당선 이후라도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회창 후보의 무소속 대선 출마에 대해 “과거의 악몽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분열 때문에 또 한번 정권교체에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통성 있는 정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가 정권의 교체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산행안내

11월 12일(월)
 ▲광주명문신학회 전라남도 영암군 위층산 11월12일(월) 08시 광주역(문예회관후 분경유)출발 cafe.daum.net/jp0905055 T.011-632-7676, 011-633-9218

11월 13일(화)
 ▲광전산악회 무주 적상산 11월13일(화) 07시40분 광전파출소나산클럽, 은병원 경유)출발 T.010-3617-9496, 018-610-3360

▲영주산악회 동양선 권선산 11월13일(화) 08시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산사순약약점 T.011-608-2208

▲팔성산악회 충북 속리산 보성 11월13일(화) 07시40분 중앙중(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T.011-605-3177

11월 14일(수)
 ▲정록산악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산행 11월14일(수) 08시 광주교원문화회관 앞 출발 T.010-6660-5665

▲광주이데오산악회 해남 두룡산 11월14일(수) 08시 동아병원(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다음카페:이데오산악회 T.011-609-0588

11월 15일(목)
 ▲광복산악회 가야산 공릉능선 절벽봉 11월15일(목) 08시 대인광장(신평화관앞)출발 T.011-627-6603

▲광주한국산악회 거창 비룡봉 11월15일(목) 07시50분 영주체육관(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T.011-615-2279

▲광주목요산악회 경남 산청군 시천면 구곡산 11월15일(목) 08시 광주역약출

▲전남산악회 대전 노덕봉 남수봉 11월18일(일) 08시 광주역 출발 T.010-9776-3630, 011-642-5197

▲광주한국산악회 연석산 운동산 11월18일(일) 07시 광주역 출발 http://cafe.empas.com/hangil T.222-3253, 010-7619-0669

▲무등산악회 거창 비룡산 우두산 의상봉 11월18일(일) 08시 롯데백화점 정남(약동은병원경유)출발 T.011-602-6278

▲거북이테마산악회 정양 절간산 11월18일(일) 07시 영주체육관(한대백화점, 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04-3951, 011-624-2181

▲남평산악회 경남 거창 의상봉-장군봉 11월18일(일) 08시 대인광장(신평화관)출발 T.010-608-2468

▲광주새무등산악회 서울 봉포구 청운농복역산 11월18일(일) 07시 대인광장 앞 출발 T.011-609-8533, 011-616-6300

▲요산회 거창 보래산 금귀봉 11월18일(일) 07시3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9

▲광주한미음산악회 경남 함천 가야산 11월18일(일) 07시30분 광주역(무등경기장후문, 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T.010-4872-6825

▲호남산악회 전북 운장산, 연석산 11월18일(일) 08시 광주역(문예회관경유)출발 ※다음카페:광주호남산악회 T.010-6216-7231, 011-605-5031

▲광주한빛산악회 여수 봉황선-남오산 11월18일(일) 07시30분 광주역(문예회관후분경유)출발 http://cafe.daum.net/062hanvii T.010-3131-3580

▲다음카페:(사)요산요수산악회(정식)백암산 11월18일(일) 08시 전대평원(문예회관)출발 3월~8월(광주역, 문예회관경유)출발 T.011-620-2002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일반인	워드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학급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노동부직접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해서설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7·9급 공무원

행정+공안+기술직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개강: 11월 15일 주·야(휴일)반 모집(정답집 제공)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222-4560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9급 공무원 개강 11월 15일

개강: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행정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원직, 소방직, 농업직, 무역직, 건설직, 보건직, 기술직

공무원 이문반 2개월 2007년 11월 15일 개강 (수업시간: 10:00~12:00)

공무원 문제풀이 6개월 2007년 11월 15일 개강 (수업시간: 10:00~12:00)

2009년 1월 15일 개강 (수업시간: 10:00~12:00)

세무직 단독반 이문반(2개월 완성) 문제풀이(1개월 완성)

기술직 단독반 농업직/보육직/건설직/산업직/보건직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전대평 원주 234-0234